

## 1. 북유럽 게르만 신화의 배경과 구조

1) 기독교가 전파되기 이전 유럽 신화: ① 그리스·로마 신화 ② 켈트 신화(아일랜드를 중심으로 남아 있는 켈트족의 신화) ③ 게르만(북유럽) 신화(스칸디나비아 및 독일어권 지역)

2) 유럽의 전래 신화들은 기독교에 의해 축출당함

3) 게르만 신화의 핵심 부분은 해당 지역의 기독교화 이후에 기록됨: 스노리 스투를루손이 13세기 초 『에다』 저술

- 750~1050년 경의 바이킹 시대 전설들을 회상: 아직 기독교를 접하지 않은 융성한 북유럽인들(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사람들)은 설새 없이 노략질과 정복을 위해 바다로 나감. 아일랜드 사람들이 바이킹족의 공격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음

- 오딘, 토르, 프레이르 신의 영웅담이 강한 전통으로 형성: 공격적인 바이킹 전사들은 애꾸눈 오딘 신의 영웅담을 즐김

- 게르만 신들의 아버지 오딘: 전사자들의 아버지, 불멸의 존재는 아님, 라그나로크(Ragnarök: 신들의 황혼) 때에 펜리르라는 이름의 늑대가 최고신인 오딘을 통째로 삼켜버림

- 북유럽 신화의 가장 큰 특징: 호전적인 신들이 결국 모두 몰락 (바이킹족의 자화상)

4) 창세신화와 우주관:

- 끝이 없는 황량한 심연 속에 움직임도 형체도 없는 창조의 맹아

- 무스펠헤임(빛의 나라)와 니플헤임(어둠의 나라)

- 간농아가프(.,하품하는/입 벌린 허공): 니플헤임에서 흘러나온 강물과 무스펠헤임에서 불어오는 열기로 녹은 얼음에서 거인 이미르(사악한 거인족의 아버지) 탄생

- 다음으로 아우두물라라는 암소가 나와 거인에게 젖을 먹임

- 암소가 얼음 덩어리를 활자 신의 모습을 한 부리 탄생

- 그 아들 보르와 거인의 딸 사이에서 세 아들 오딘, 빌리, 베가 탄생

- 세 아들이 최초의 거인 이미르를 죽임: 이미르가 흘린 피가 너무 많아 그 피에 거인족

모두가 빠져 죽고 베르겔미르만 살아남음(배를 타고 도망쳐 살아남은 베르겔미르가 새로운 거인족의 시조가 됨)

- 이미르를 죽인 오딘 삼형제가 이미르의 시체로 새로운 세상을 창조: 피 - 바다와 강, 뼈와 이빨-산과 바위, 머리카락-나무, 두개골-하늘, 뇌-구름, 무스펠헤임의 불꽃-별, 난쟁이족을 만들어 땅과 바위에 거주케 함, 해변의 물푸레나무와 오리나무로 남자와 여자(사람) 창조

- 오딘은 사람에게 영혼과 생명, 빌리는 재능과 감정, 베는 아름다운 용모, 언어, 감각 부여하고, 인간은 미드가르드(중간지대)에 거주

- 북유럽 신화에서 가장 흥미롭고 독특한 요소는 세계나무: 하늘, 땅, 지하세계를 꿰뚫어 지탱하는 거대한 우주 축(무성한 잎-구름, 금빛 열매-별, 세 갈래로 나뉜 뿌리는 지하세계, 거인족, 신들의 세계에 각각 뻗어 있음,

각 뿌리의 끝에 샘물: 아스가르드(신들의 거처):우르드-신들의 화합의 장

요툰헤임(거인족의 거처): 미미르의 샘-지혜의원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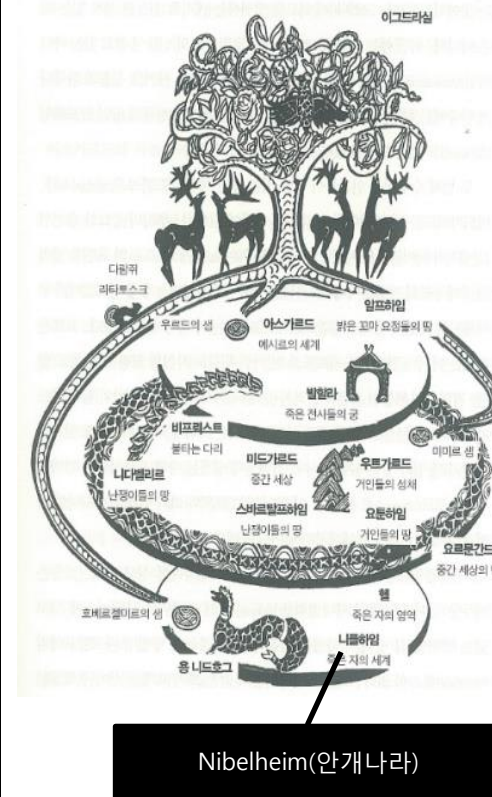
니플헤임(죽은자들의 거처): 흐베르겔미르-11개 강들의 발원지

시체를 먹는 괴물 용 니그호그가 이드그라실의 뿌리를 갉아먹고 있음

아사헤임(견고한 하늘): 난쟁이 넷이 동서남북에서 떠받침.

하늘의 해와 달: 두 마리 늑대에 쫓겨 설새 없이 달림(늑대 스켈-해, 늑대 하티-달)

무지개다리 비프뢰스트: 아스가르드와 미드가르드(중간 세상) 연결



## 5) 주요 신, 정령, 난쟁이족

① 오딘(외눈박이 신): 최고의 통치자. 전쟁의 신 - 지혜를 얻기 위해 미미르의 샘물을 마시는 대가로 한쪽 눈을 바침,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영웅에게 용기를 주고, 시의 수호신으로서 시인에게 영감을 줌, 주요 무기는 마법의 창 궁니르, 어깨에 까마귀 후긴(생각)과 무긴(기억)을 데리고 다니며 정보 수집, 두려운 신이지만 현명하며 대개는 공의로운 신으로 그려짐. 전투에서 죽은 용맹한 전사들을 휘하에 두고 ,라그나뢰크'(세계의 멸망, 종말 전쟁)에 대비하려 하나, 로키의 자식인 괴물 늑대 펜리르에게 죽임을 당할 운명

② 토르: 질서를 수호하는 신, 천둥치는 쇠망치 미올니르(파괴의 상징, 재앙을 막아주는 부적, 창조를 상징하는 호신품, 농사 도구이며 풍요의 상징으로서 남근을 의미)로 거인들을 제압하여 그들을 우트가르드(바깥세계)에만 머물게 함, 미드가르드를 감싸고 있는 뱀(요르문간드)를 낚시로 잡아 올리는 괴력 소유,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자작농을 수호하는 신, 체구가 크고 붉은 수염이 난 토르는 식욕이 엄청나고, 쉽게 이성을 잃고 화를 내지만 금세 평정심을 찾음, 기민하지는 못해도 강건하고 믿음직스러움

③ 로키: 불의 신, 선동•사기•변신술 등 혼란을 초래하다가 라그나뢰크를 재촉, 원래는 무해한 장난꾼에 가까웠으나, 점차 사악하고 난폭한 악탈자로 변하여 재앙을 초래하고 망, 악의 화신으로 세 자식(거대한 세계 뱀 요르문간드, 늑대 펜리르, 지옥 헬의 여왕이 된 막내딸 헬) 모두 악한 괴물들, 자식들과 함께 거인족을 지휘하여 아스 신족과 영웅들을 상대로 최후의 결전을 펼침

④ 정령과 난쟁이족: 파괴적인 빙하와 이글거리는 화산으로 인한 공포감이 북유럽 신화 속 수많은 괴물 신화의 배경, 흑한기의 눈덮인 황야와 봄철의 화려한 생태계가 교차하는 스칸디나비아의 풍광은 각종 정령에 대한 생각을 들끓게 함, 정령들은 공포감을 일으키는 서리 거인, 폭풍 거인, 불의 거인으로 산 속과 비탈에 거주. 대지의 정령인 난쟁이족은 비옥한 땅에 거주했으며 친절하고 수줍고 무서움을 많이 탐.

6) 보물과 호신품: 북유럽 신화의 장인 계급은 지혜롭고 재주가 많은 난쟁이들은 지하동굴에서 정교한 기술과 신비한 지혜로 신과 영웅들을 위한 보물과 호신품을 제작 - 토르의 쇠망치, 오딘의 창 궁니르 등

7) 영웅들: 바이킹 전사들은 용맹과 투지로 명성이 높았음 - 북구 사나이들은 세계의 멸망과 자신의 죽음이 불가피함을 인정한 만큼 불굴의 투지로 싸움에 임함, 즉 그들에게 전부인 명에는 사후에도 지속됨, 가장 용감한 전사들은 죽은 뒤에 발할라, 곧 오딘이 주재하는 궁전에 들어가 최후의 결전인 라그나뢰크를 기다림.

- 인간 세계의 최고 영웅은 시구르드(지크프리트 Siegfried): 부친이 물려준 불패의 보검으로 거대한 용 파프니르를 죽이고 보물을 차지하나, 그 보물의 저주 때문에 끝내 암살당하고 망

8) 마법과 주문: 주로 오딘과 자연신인 바니르 신들이 담당, 시구르드(지크프리트)와 같은 영웅들은 신비한 무기를 소유하나 마법을 지니지는 못함. 최고의 마법사는 오딘

9) 비극적인 사랑: 비극적 사건의 배경에는 저주가 있음. 지크프리트와 브륀힐트의 이야기에서는 소유자에게 재앙을 초래하도록 저주가 걸린 반지가 두 연인을 파멸시킴

10) 마법의 반지: 바이킹족에게 반지는 힘과 부와 명성의 유력한 상징이자 명예로운 선물이며, 지불수단이고 왕조의 유산. 영웅들에게 반지는 때론 불행을 초래하기도 함

- 안드바라나우트(재앙의 반지): 난쟁이 안드바리가 가지고 있던 이 반지를 로키가 빼앗아 마법사 흐레이드마르에게 줌, 흐레이드마르의 아들 오투르가 수달로 변신한 것을 모르고 오딘과 여행하던 중 로키가 오투르를 죽이고, 화가난 흐레이드마르가 엄청난 금을 요구하자 로키는 난쟁이 안드바리를 협박하여 배상금을 조달하였는데, 그 때 반지가 로키를 거쳐 흐레이드마르의 손으로 넘어감, 저주의 배경에는 지나친 탐욕(물욕)과 불의한 행위가 자리함. 반지와 황금을 가지기 위하여 죽은 오투르의 형제들인 파프니르와 레긴이 아버지 흐레이드마르를 죽이고, 파프니르를 반지를 지키기 위해 용으로 변신하며, 그 용을 지크프리트가 죽이고 보물을 차지함, 그러나 시구르드(지크프리트) 역시 그 저주로 인하여 살해당하고 망.

-시구르드(지크프리트)는 아름다운 브륀힐트를 보고 사랑에 빠지지만 그람힐드의 마술에 걸려 그의 딸 구드룬과 결혼, 정신을 차린 시구르드는 브륀힐트를 배신했다는 죄책감에 슬퍼하나, 브륀힐트는 두 오빠 호그니와 군나르를 사주하여 시구르드를 죽임, 살육은 계속되어 니플룽(니벨룽)족과 부르군트족의 완전한 몰락으로까지 고조됨, 신화와 전설의 경계에서 시작하는 시구르드 영웅담은 중세독일의 대서사시 『니벨룽겐의 노래』로 반복 및 변형되어 나타남.

11) 라그나뢰크(신들의 황혼): 태초에 예정됨, 물과 불의 작용으로 생성된 물질세계는 애초부터 불완전하고 무상하며, 창조의 주체인 신들과 그 피조물인 인간이 각기 자신들의 세계에서 서로 불화하고 반목한 끝에 파멸의 소용돌이에 빠지들고 망, 라그나뢰크를 예고하는 전조로서 수많은 파국이 일어나는데, 선과 아름다움의 남성적 표상으로 숭배받는 발드르가 질투와 증오에 찬 로키에게 살해당하고, 신들의 나라 아스가르드 밖에서는 거인족의 증오가 더욱 심해짐, 마침내 시작된 라그나뢰크에서 온갖 악의 세력이 일제히 뛰쳐나옴.

- 『에다』 제 1곡 ,에언녀의 계시'의 말미에 묘사된 종말 신화는 일방적으로 현세 파괴와 내세의 승리를 강조하는 기독교적 종말론과 달리 말세에 이어질 재생도 암시. 생태계의 회복 및 세대교체에 의한 신생과 재건의 기미가 희미하게 제시. 불과 물로 정화된 새로운 대지가 바다에서 초록색으로 떠오르고, 이그드라실에 숨어 있던 젊은이 리프 Lif(life, Leben)와 처녀 리프트라시르 Lifthrasir(,생명을 추구하는 자')가 생존하여 새 세상에 새로운 족속을 퍼뜨릴 것, 신족 가운데 오딘의 두 아들 비다르, 발리와 동생 호니르가 살아

남고, 토르의 아들 모디와 마그니도 위력의 쇠망치 미올니르를 물려 받음, 억울하게 죽은 발드르가 부활하여 죽은 자들의 세계 ,헬'로부터 귀환

- 라그나로크의 어두움과 무거움 외에도 북유럽신화에는 신과 영웅들의 용기가 한껏 과시되고 있으며, 새 세상에 대한 소망도 담겨 있음

## 2. 『니벨룽겐의 노래』

- 봉건사회가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12-13세기 서유럽에서는 성실과 명예, 경건, 부인에 대한 봉사 등을 덕목으로 하는 기사도 정신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윤리로 자리 잡음

- 기사도 정신과 귀부인 숭배를 주제로 한 기사 문학 장르 등장

- 기사 문학 최고의 걸작: 『니벨룽겐의 노래』

- 작자 및 연대 미상

-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 초반 작품의 배경이 되고 있는 도나우강 주변의 지리에 밝은 기사 혹은 음유 시인에 의해 씌어졌을 것으로 추측, 유럽에서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던 시대(4세기 말~6세기 말)의 영웅 설화와 북유럽 설화가 짜집기된 것으로 전체 39장, 2444절(1절=4행)로 구성되어 있으며, 19장까지가 전편, 이후 20개 장이 후편

- 437년 훈족이 라인 지방에서 부르군트 왕국을 멸망시켰던 일과 453년 훈족의 왕 아틸라가 잠자리에서 갑자기 각혈하며 게르만 계통의 왕비 곁에서 급사한 사건 등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함

- 브륄힐트 또한 역사 속 실재인물: 민족 대이동 시기 프랑켄 왕국에는 왕의 아들이 분할 상속하는 상속법이 있어 세 아들이 왕국을 분할 통치, 이들 중 한 아들인 지게베르트의 아내가 서고트족 브륄힐트. 다른 한 아들 힐베리크의 아내는 신분이 높지 않은 집안 출신의 프레데군테. 힐베리크가 재물을 노려 프레데군테를 내쫓고 브륄힐트의 언니와 결혼하려고 하자 프레데군테가 브륄힐트의 언니를 죽임. 이에 브륄힐트는 남편을 설득해 힐베리크의 나라로 쳐들어가지만 오히려 프레데군테에게 남편을 잃으며, 프레데군테는 자신의 남편마저 죽여버림. 브륄힐트와 프레데군테는 『니벨룽겐의 노래』속 브륄힐트와 크림힐트처럼 원수지간이 되어 왕조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싸우며, 그 싸움은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써 끝남

- 『니벨룽겐의 노래』가 등장했을 때 독일은 이미 기독교 문화권에 속함. 그러나 『니벨룽겐의 노래』속 이야기의 토대는 신들의 시대. 따라서 등장 인물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며, 교회가 등장하는 한편, 신들을 모시던 시대의 가치관을 계승하여 명예를 중시하는 전통이

밀바탕에 자리하고 있음

- 『니벨룽겐의 노래』는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기 전까지 양피지에 필사된 사본으로 전해짐. 따라서 필사자에 의해 내용의 일부가 생략되거나 덧붙여질 수 밖에 없었음. 때문에 다양한 버전이 존재함. 어떤 버전에서는 지크프리트가 크림힐트를 만나기 전 브륄힐트를 만나 사랑하지만 크림힐트와 결혼하자 브륄힐트가 질투하는 것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버전에서는 크림힐트를 연모한 하겐이 지크프ρί트를 죽이는 것으로 나오기도 함. 현재까지 발견된 사본은 총 30여 종.

- 『니벨룽겐의 노래』에는 독일인 특유의 ,철저함'이 잘 묘사되어 있음. 유럽의 한 가운데에 위치한 독일은 나라가 여럿으로 나뉘기도 하고, 여러 나라에 영토를 빼앗겼다가 되찾는 일을 수도 없이 겪었기 때문에 과거의 유산과 자신들만의 전통을 지키기가 어려웠음

- 『니벨룽겐의 노래』는 그림에도 독일의 정서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유일무이한 신화로 인정받음

- 특징: 전편과 후편의 주제와 분위기가 판이하다는 점.

전편: 지크프리트가 크림힐트와의 결혼에 성공하고 암살당하기까지 영웅의 화려한 무용담이 주를 이룸.

후편: 지크프리트가 죽고 난 후 또 한 번 결혼을 하여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된 크림힐트가 처절한 복수를 하며, 자기 자신마저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으로 피가 피를 부르는 혈투를 불러일으키면서까지 죽은 남편의 원수를 갚으려는 크림힐트의 정절 이야기가 주제

- 『니벨룽겐의 노래』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주제: 재물에 대한 인간의 욕망, 즉 탐욕. 지크프리트가 소유한 막대한 니벨룽의 보물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 보물에 눈이 어두워진 하겐과 군터의 음모, 남편이 죽자 자신의 소유가 되었지만, 하겐에게 넘어가버린 보물을 되찾기 위한 크림힐트의 욕심으로 인해 피가 난무하는 복수극이 벌어지게 된 것.

- 주요인물

지크프리트:네덜란드의 왕이자 크림힐트의 남편, 이미 니벨룽을 정복, 막대한 재물소유, 용을 죽이고 그 피로 목욕을 하여 최강의 영웅이 됨

크림힐트: 대단한 미모를 가진 부르군트국 공주이자 지크프리트의 아내. 남편의 죽음을 애통해 하는 젊은 왕비.

군터: 부르군트의 왕이자 크림힐트의 오빠. 지크프리트의 도움으로 아내를 맞이하며, 신하 하겐의 유혹에 넘어가 동생의 남편인 지크프ρί트를 배반.

브룬힐트: 뛰어난 미모와 막강한 힘을 가진 이슬란트의 여왕. 자존심이 강하며 피의 복수가 벌어지게 되는 원인 제공자

기젤헤어: 크림힐트의 오빠. 지크프리트를 잃은 크림힐트를 다정하게 대하는 유일한 인물

하겐: 군터왕의 가신이자 신임받는 장수. 지크프리트를 암살함으로써 비극을 초래하는 장본인으로 교활하고 잔혹하지만 때론 우정과 신의를 중히 여김

#### \*참고문헌

카를 짐록 완역본, 만프레트 슈탕에 개정판(임한순, 최윤영, 김길웅 역주): 북유럽 신화 에다, 게르만 민족의 신화, 영웅전설, 생활의 지혜, 서루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임용호 옮김: 니벨룽의 대서사시, 중문화사, 2003.